여기 사람이 있다 23호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http://mbout.jinbo.net 02-795-1444

2009.10.29

철거민은 무죄다

권력의 하수인 사법부가 유죄다

▲ **'이건 재판이 아니다'** 28일 용산 철거민 1심 선고공판에서, 고 이상림 열사의 아들이자, 용산4구역철거민대책위원장인 이충연 위원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유가족 전재숙 님이 오열하고 있다.

'참사 생존가가 살인자'라는 판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10월 28일 열린 용산철거민 선고공판에서, 사법부는 왜곡편파 수사를 일삼은 검찰의 손을 그대로 들어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용산 철거민들에게 유죄를 선고, 6년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경찰을 죽였다는 죄명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혐의뿐만 아니라 검찰의 모든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재판부가 사법정의를 포기한 것입니다.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거짓

7개월 간의 재판 결과가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결과를 되풀이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키고 수사기록 3000쪽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재판은 파행이 되었습니다. 다시 재개된 공판과정에서, 기존 검찰진술과 달리 망루안에서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고 모든 특공대원들이 진술하여, 화염병에 의한 발화와 화재참사라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1월 19일 상황이 특공대를 투입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재개발조합과 용역업체의 일방적인 '사익'과 김석기 경찰청장 취임을 앞둔 경찰력 과잉대응이 빚어낸 참사라는 점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왜곡된 검찰 주장을 되풀이한 판결

하지만 이 땅의 사법부는 철거민 세입자의 입장, 경찰강경진압에 최소한의 저항을 했던 농성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세력과 용역깡패, 경찰, 정치검찰의 입장만을 대변하였습니다. 발화지점, 원인, 화재 책임자에 대해 특정하지 못한 검찰의 엉터리 주장에 기대고 오락가락하는 경찰 수뇌부의 진술에만 의존해 발화원인이 철거민들이 망루에서 던진 화염병 탓이라고 단정지었으며, 누가 던졌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모두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9명 모두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 문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면서도 용산재개발 과정의 조합과 용역에 대한 철거민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으며, 폭력적인 개발과정에 따라 조합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조물에 침입한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 등 이치에도 맞지 않는 판결 아닌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건 재판이 아니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마치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 읽어내려가는 판결문 낭독 도중 이충연 용산4상공 철대위 위원장과 기소된 철거민 한 명이 "이건 재판이 아니다"라며 법정에서 퇴장하였고 이어 담당 변호사마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故 이상림열사의 부인이자 이충연 위원장의 어머니인 전재숙 님은 오열하였고, '자살특공대'라는 누명을 벗지 못한 열사들의 유가족들은 법원 로비에 망연자실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참담한 재판 결과는 오히려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검찰 은닉 수사기록 3천쪽도 없이, 핵심 증인 김석기도 없이 진행된 이 반쪽짜리 재판을 통해, 지난 9개월간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함께 해준 시민들은 약자를 철저하게 짓밟는 이 부패공화국의 공안통치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진실은 승리한다

여전히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항소심을 통해 다시금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별검사제를 통해 사건을 공정하게 밝히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철거민과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 죽음을 건 단식농성을 지속하는 범대위 대표자들이 있고, 용산참사 현장을 지키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투쟁의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참사의 진실은 가난한 세입자들의 처지를 철저히 무시하는 살인개발, 살기 위한 철거민들의 요구를 경찰 폭력으로 짓밟은 이 땅의 공안통치, 검-경은 물론 사법부까지 한 통속으로 만들어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명박 정부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명명백백한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투쟁의 이유는 단 하나 뿐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이자!
용산참사 해결, 우리의 힘으로!

* 10월 26일부터 용산범대위 대표단과 수배중인 공집장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 그리고 각계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 11월 2일(월) 저녁 7시 시청광장에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추모 미사"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주최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모금 계좌 : 농협 067-02-302163 / 국민 295401-01-156716 (이종회)

신문23호.indd 1 2009-10-29 오후 2:16:22

[최후 진술서] 상처받은 가족들을 지키기위해 망루에 올랐습니다

철거민 다섯분이 희생되시고 해결점 없이 어느덧 10개월째인 것 같습니다.

망루속에서의 추위와 두려움 망루 4층에서의 공포를 체감하며 생사의 기로에 섰던 저는 돌아가신 다섯분이 마지막에 떠올렸을 얼굴들이 누구였을지 감히 알 것 같습니다. 바로 그동안 건설자본의 탄압에 상처받은 가족들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재개발과정에서 시청과 구청의 묵인하에 시행사와 시공사 조합에서 사들인 용역깡패에 의해 주민들이 폭행당하고,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손에 들려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분노스럽고 답답했습니다. 제 가족구성원인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상처받고 가정생활이 파괴되는 것을 마냥 이해하고 참아 넘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약하지만 제 권리를 포기한다면 이 나라 국민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각오로 제 가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망루로 내몰린 철거민들을 인간적으로 보아 주십시오.

참사 이후 철거민들을 테러집단, 폭력세력, 반정부단체라고 하는 낙인을 찍은 경찰과 정치인들에 의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자본의 탄압에 눌려 세입자들이 길바닥에 내몰렸는데도 아무도 관심두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답답함을 해결해 하기 위해서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철거민들과 인간적으로 서로 돕고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이충연 위원장은 방송 인터뷰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동지들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동지들 욕하지 마세요”하는 목 메인 대목에 공감이 갑니다.

2-3시간만 도와주면 그들의 희망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되어 용산4가 철거민들의 희망을 만 하루만에 산산이 깨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이미 통찰하셨을 바, 이 사건의 주범은 망루에 몰린 철거민도, 일방적인 망루 진압을 지시받은 젊은 경찰특공대원들도 아닌 탐욕스러운 자본과 권력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기록 3000페이지를 공개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철거민에게 떠넘겨 화염병을 던져 같은 처지에 있는 철거민 다섯분과 경찰특공대원을 희생케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찰특공대원들의 심문과정에서 들어났듯이 철거민들 중 그 누구도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해 망루안으로는 단 1개의 화염병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 살고자 망루에 올라가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조금이라도 철거민들의 호소에 귀기우려 듣고자했다면, 아니 안전만이라도 고려했다면 이 불행한 사태를 접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희생되신 다섯분과 저희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망루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욕심 많은 자본과 권력의 탐욕으로부터 그 누구도 아닌 상처받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와 답답함을 호소하려고 망루에 오르려 했던 것입니다.

망루 꼭대기로 내 몰린 철거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재판장님께서 베푸실 온정이 있다면, 희생되신 다섯분 그리고 유가족과 구속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저희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일상으로 보내 주시길 간곡히 청하며, 최후진술을 마무리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최후진술인 김 창 수

* 불구속자이던 김창수 님은 지난 28일 징역 5년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

용산범대위 대표자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정운찬 국무총리가 추석 당일날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유족에게 용산참사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한지도 벌써 한 달이 다되어 간다.

하지만 공직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던 정 총리는 용산현장 방문이후 말을 바꾸고 얼굴색을 바꾸었다. 그 동안 정 총리가 한 일이라고는 총리실 담당자를 시켜 유족에게 두 번 전화를 걸어 용산참사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며, 유족과도 만날 수 없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 뿐이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전철연과 범대위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고, 심지어 다섯 유가족 사이에서도 대화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면서 범대위와 유족을 분열시키는 일에만 몰두해 왔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280일이 지났다. 여전히 총리는 서울시장에 책임을 떠넘기고, 서울시장은 용산구청과 재개발 조합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5명의 아까운 목숨이 죽었는데 280일이 되도록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새 총리가 용산현장에서 눈물까지 흘렸어도 돌아오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회피와 야비한 분열책동뿐이다.

문규현 신부님이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 기도를 이어가시던 중에 쓰러지셨다.

신부님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았다. 이제 신부님들의 기도에 우리가 화답해야 할 때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정운찬 총리가 용산참사의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할 때까지 오늘부터 곡기를 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정운찬 총리가 끝끝내 용산참사의 해결을 외면하고 유족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다면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농성을 이어갈 것이다.

- 용산참사 해결없는 서민행보 기만이다, 용산참사 해결하라!
- 정부는 유족앞에 사죄하고 용산참사 해결하라!

2009년 10월 26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 일동

단식 참가 대표자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조희주 (노동전선 대표),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 최헌국(예수살기 목사), 남경남 (전철연 의장, 수배중), 이종회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수배중), 박래군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수배중)